

조합형 한글 서체 디자인 입력 방식에 대한 제안

A study on proposing new text input system
in Combination mode Hangeul font design

이근형 Lee, Keun-hyung

계명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 Professor of Keimyung University

eurojj@naver.com

투고일	2018.03.13	심사일	2018.04.14	게재확정일	2018.04.23
-----	------------	-----	------------	-------	------------

목 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내용 및 방법
 2. 한글 서체 디자인 방법
 - 2.1. 완성형 한글 서체 디자인
 - 2.2. 조합형 한글 서체 디자인
 3. 한글의 입력 방식
 - 3-1. 정부 표준 두벌식
 - 3-2. 복수 표준으로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세벌식
 4. 조합형 한글 서체 디자인 입력 방식 제안
 - 4.1. 입력 방식 제안을 위한 가능성 검토
 - 4.2. 조합형 한글 서체 디자인 입력 방식 제안
 5. 결론 및 연구의 한계와 제언
- 참고문헌

Abstract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Hangeul history. These changes seems to come from needs of the time. Collinear writing was claimed and horizontal writing replaced vertical writing and Combination mode Hangeul was developed. Number of Hangeul fonts dramatically increased due to various needs of usage. Despite these changes, the way of making Hangeul font has not changed since late 1980s. There are Completion mode and Combination mode Hangeul font design method. Completion mode Hangeul is the best way of making decent font and it adopts national standard text input system. However, it takes long time to generate fonts and need special coding. By contrast, Combination mode Hangeul is very economical way of making font. It needs to design only a dozens of vowels and consonants. Combination mode Hangeul adopts 3-way text input system which is unaccustomed to users. Whereas, if Combination mode Hangeul font can be changed its text input system, it can be great Hangeul font design method.

This study propose new text input system in Combination mode Hangeul font. 33 keys out of 60 are the same as national standard input system. The result of survey research tells that new text input system is 79% similar to national standard. The new text input system could be the beginning of convenient Hangeul font design method.

논문요약

한글은 창제, 반포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변화를 주도한 것은 아마도 시대의 요구일 것이다. 풀어쓰기에 대한 주장이 있었는가 하면, 세로쓰기가 가로쓰기로 바뀌었고, 세벌식 활자가 등장했으며, 다양한 글꼴에 대한 요구로 인해 서체(font)의 종류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서체의 제작 방식도 변해왔는데, 1980년대 후반 도입된 컴퓨터를 이용한 제작 방식이 현재까지 크게 변하지 않아, 한 벌의 온전한 한글 서체를 만든다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로 남아있다. 한글 서체는 제작, 조판 방식에 따라 완성형과 조합형으로

Keyword

한글 서체 디자인, 입력 방식
Hangeul Font Design, Text Input System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장, 단 점이 존재한다. 완성형은 미려한 형태의 글꼴을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입력 방식 또한 국가 표준으로 지정된 두벌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한글 서체가 완성형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하지만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며, 원도 제작 후 별도의 코딩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비해 조합형은 그려야 하는 자소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제작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나 사용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세벌식 입력 방식 때문에 사용에는 많은 불편이 따른다. 하지만 입력 방식을 좀 더 익숙한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는 매우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조합형의 장점 즉, 제작상의 편리함은 살리되, 입력 방식을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두벌식에 최대한 가깝게 바꾸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입력 방식은 60개의 입력키 중 33개를 두벌식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본 연구의 입력 방식이 두벌식 입력과 79% 유사하다고 답하여 사용의 가능성도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보다 편리한 한글 서체 디자인 방법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글은 창제, 반포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 변화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 변화를 주도한 것은 아마도 시대의 요구일 것이다. 풀어쓰기에 대한 주장이 있었는가 하면, 세로쓰기가 가로쓰기로 바뀌었고, 세벌식 활자가 등장했으며, 다양한 글꼴에 대한 요구로 인해 서체의 종류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물론 라틴 알파벳에 비교하면 아직은 그 종류가 많거나 형태가 다양하다고 주장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늦게 발명된 문자이며¹⁾ 한글만이 갖고 있는 제작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현재의 상황만 해도 매우 놀라운 발전임에는 틀림없다. 2005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서체가 유료라는 개념도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과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 도입된 컴퓨터를 사용한 서체 제작 방식이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어, 한 벌의 한글 서체를 만든다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로 남아있다. 라틴알파벳 등의 문자에 비해 그려야 할 자소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개발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라틴 알파벳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려움도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서체 디자인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종사자도 많지 않거니와 그 저변이 공고하지 못하다. 한글 서체는 제작, 조판 방식에 따라 완성형과 조합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장, 단 점이 존재한다. 완성형은 미려한 형태의 글꼴을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입력 방식 또한 국가 표준으로 지정된 두벌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한글 서체가 완성형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하지만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며, 원도 제작 후 별도의 코딩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아마도 한글 서체 디자인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완성형 제작 방식 때문일 것이다. 이에 비해 조합형은 그려야 하는 자소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제작 속도를 완성형에 비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나 사용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세벌식 입력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에 많은 불편이 따른다. 하지만 입력 방식을 좀 더 익숙한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는 매우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조합형의 장점인 제작상의 편리함은 살리되, 입력 방식을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두벌식에 최대한 가깝게 바꾸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완성형과 조합형 제작 방식의 장점만 취하자는 것이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컴퓨터의 등장 이후 한글 서체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완성형에 관한 연구로는 이용제(2016)의 ‘네모틀 한글 조합규칙에서 당자 그룹 설정 방법 제안’과 김주영(2004)의 ‘한글 서체의 자·모음 형성체계’ 등이 있는데 주로 완성형 서체 디자인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조합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조합형의 경제성과 과학성, 한글 창제정신과의 부합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

1) 훈민정음 창제 1443년, 반포 1446년

따른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 서체 디자인 방법에는 완성형과 조합형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과 제작 방법, 장, 단점은 다음과 같다.

2-1. 완성형 한글 서체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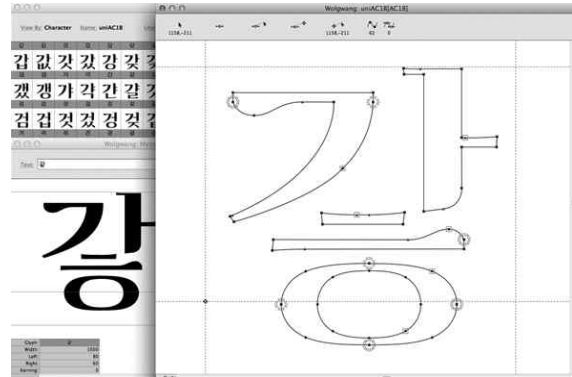
완성형 한글 서체 디자인은 모든 낱글자를 한 자씩 그려 완성해가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또한 모든 글자를 동일한 크기의 네모틀 안에 그려 넣기 때문에 네모틀 글자라 칭하기도 한다.



[그림 3] 완성형 한글 서체

이론상으로는 모든 글자를 따로 그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자소들을 소프트웨어의 복제 기능을 이용하여 붙여가는 방식으로 작업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각 글자마다 최적의 공간 구성을 위해 미세한 조정 및 수정이 불가피하다. 한 글자씩 따로 그리는 방식 때문에 디자이너의 의도에 맞게 미려한 글꼴을 만들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란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폰트 상품은 모두 완성형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다. 완성형 한글 서체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글 표준코드(KSC 5601)에서 정한 2,350자를 그려야 한다. 물론 한글에서 구현 가능한 모든 글자 수는 11,172자이다. 초성 19자와 중성 21자 그리고 종성 27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ㅊ, ㅊ, ㅊ, ㅊ, ㅊ, ㅊ) 가 조합되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11,172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글 표준코드는 구현되는 글자 수를 2,350자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1987년 KSC 5601로 한글코드를 표준화하였다.⁴⁾ 11,172자 중에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글자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빈도를 조사하여 자주 사용하는 2,350자 정도만 정하면 글자 생활에는 별 무리가 없으며, 오히려 컴퓨터의 메모리가 절약

된다는 것이 당시의 논리였다. 표준코드로 정한 2,350자의 한글과 라틴 알파벳 및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기호 등을 포함한 94자를 별도로 그리면 비로소 한 벌의 서체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림 4] 폰트 테이블에 낱자를 입력하는 화면

폰토그래퍼나 폰트랩에서 25개의 폰트 테이블(자소 테이블이라 칭하기도 한다)을 생성한 후 각 폰트 테이블에 한글 표준코드(KSC 5601)에서 정한 키값에 따라 낱자를 한자 한자 입력한다. 제작자에 따라 폰토그래퍼, 폰트랩 상에서 직접 그리거나 스케치한 원도를 바탕에 깔고 작업하기도 하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도를 한 후 폰토그래퍼, 폰트랩 등으로 옮기기도 한다. 한국글꼴개발원의 조사(2004)에 의하면 완성형 한글 서체 한 벌의 평균 개발기간은 7.5개월, 평균 개발비용은 2,000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하더라도 선불리 도전하기 힘든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림 5] 폰트 테이블과 폰트 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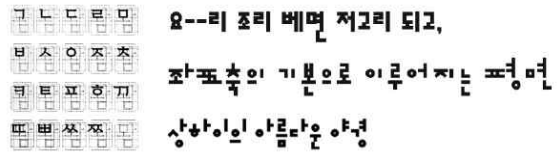
4) 윤영기. (1999). 윤영기의 한글디자인, 도서출판 정글, p.208

완성형의 장점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글자마다 미려하고 짜임새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과 현재까지는 가독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독성이 높다는 장점이 영원 불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완성형 한글 서체의 가독성이 높은 이유는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어왔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독성은 글자의 구조뿐만 아니라 익숙함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완성형의 단점은 역시 어마어마한 작업량과 별도의 코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단점들이 바로 다양한 한글 서체의 등장을 더디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제작에 소요되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은 결국 신입디자이너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글자 표현이 2,350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외래어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글자가 표현되지 않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11,172자가 모두 구현되는 유니코드(Unicode)⁵⁾가 보급되는 추세에 있다.

2.2. 조합형 한글 서체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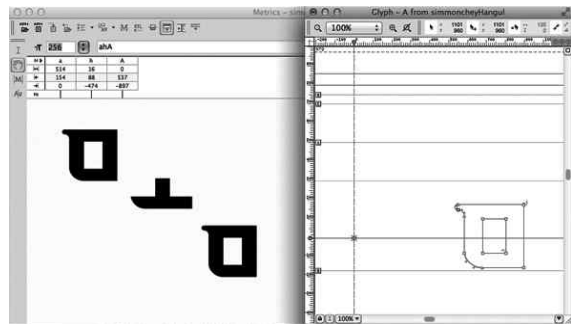
조합형 한글 디자인은 초성19, 중성 21, 종성 27 등 모두 67개의 자소를 그린 후 그 자소들을 폰트그래퍼, 폰트랩 등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합하여 글자를 구현하는 제작 방식을 말한다. 제작 방법에 따라 초성의 ‘ㄱ, ㄷ, ㄴ, ㄸ, ㅈ’을 결합시켜 ‘ㄲ, ㄸ, ㅃ, ㅆ, ㅉ’을 만들고, 중성의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를 결합시켜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려야 하는 자소는 56개까지 줄어들 수 있다. 소프트웨어 상에서 자소를 기계적으로 조합하게 되면 획수 차이나 종성의 유무 등에 따라 낱자의 면적이 달라져 네모틀을 벗어난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때문에 탈네모틀 글자라 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2,350자의 낱자를 모두 그려야하는 완성형에 비해 작업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방법이다.

5) 유니코드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추진하는 코드 체계에 불만을 가진 IBM, MS 등의 미국 기업들이 결성한 컨소시엄에 의해 만들어진 코드체계.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자들을 분류, 배열하여 16비트 체계 안에 모두 넣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고 있다.



[그림 6] 조합형 한글 서체

조합형 한글 디자인은 자소의 형태와 자, 모음의 결합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기준선 위치와 조합 원리의 변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무한한 가능성이 바로 조합형 한글 서체 디자인의 매력 중 하나이다. 하지만 폰트그래퍼, 폰트랩 등은 한글 디자인을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라틴 알파벳 디자인을 위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편법을 동원해야 한다. 초성과 중성 그리고 종성을 정상적인 공간에 배치하면 마치 풀어쓰기를 한 것처럼 공간이 벌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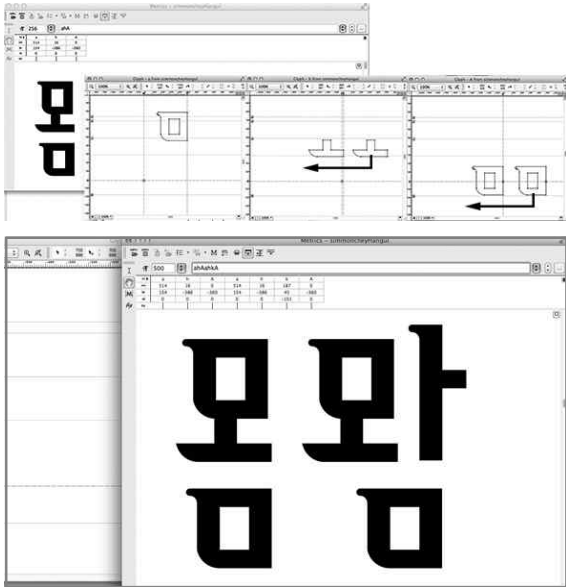
[그림 7] 간격이 벌어진 조합형 서체의 자소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라틴 알파벳의 커닝(kerning) 기능을 활용한다. 커닝은 라틴 알파벳에서 낱자 사이의 공간을 시각적으로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 특정한 글자 사이의 공간을 별도로 조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A자와 V자가 마주하게 되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생기는데 이를 정상적인 자간과는 별도로 조금 더 좁혀 시각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그림 8] 라틴 알파벳의 커닝 기능

커닝 기능을 한글 디자인에 응용하게 되면 초성과 중성, 중성과 중성 사이의 공간을 디자이너의 의도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초성을 정상적인 값으로 입력한 후 세로로 만나는 중성이나 중성에는 극단적인 마이너스 값을 적용하여 앞 자소의 안쪽까지 이동시키면 일반적인 한글의 모임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초성, 중성, 중성 등 각 자소의 배치, 각 자소 사이의 공간 설계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서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9] 커닝 기능을 활용하여 자소의 간격을 조절한 예

폰트 테이블의 키값에 맞게 각 자소를 입력한 후 제작 의도에 맞게 커닝 기능을 활용하여 각 자소 사이의 공간을 조정한다. 완성된 폰트 테이블에서 소프트웨어의 제너레이트(Generate) 메뉴를 실행하면 폰트 화일이 생성된다. 이 화일을 컴퓨터에 설치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서체가 완성된다.

조합형의 장점은 제작 시간이 짧고 제작 방법 또한 비교적 간단하다는 것이다. 2,350자의 온전한 글자를 모두 그려야 하는 완성형에 비해 67개의 자소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제작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하나의 폰트 테이블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폰트 화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26개의 폰트 테이블을 모아 별도의 코딩 과정을 거쳐야 하는 완성형에 비한다면 제작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다. 낱자를 동일한 공간의 네모틀안에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글자 표

현이 가능하다는 것도 조합형의 장점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조합형의 단점은 완성형에 비해 가독성이 낮고, 심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소들의 기계적인 조합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글자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낱자를 하나하나 그려나가는 완성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이다. 세벌식을 채택하고 있는 입력 방식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제작 시 폰트 테이블의 입력키 값을 공병우 세벌식 자판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세벌식 입력 방식은 그 장, 단점의 유무와 상관없이 현재는 보급 및 사용이 거의 되고 있지 않다. 세벌식 자판 배열에 따라 제작된 서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벌식 입력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사용 환경에서는 매우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완성형에 비해 간편한 제작 방식은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으며, 낮은 가독성과 부족한 심미성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따라서 조합형 서체의 불편한 입력방식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경제적이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제4장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외에 폰트의 제작 방식은 완성형으로 하되, 글자의 형태는 조합형의 느낌이 들도록 만든 소위 '절충형'이란 서체도 있으나 이는 제작 방법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제안이 아니라 글자의 형태에서 오는 느낌만을 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한다.

3. 한글의 입력 방식

글자 사용에 있어 초석이 되는 것은 글자판, 즉 입력 방식이다. 입력 방식을 논할 때 '벌식'은 매우 절대적인 문제다. '벌식'이란 말 그대로 자음과 모음의 벌수, 즉 자음과 모음이 몇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가를 말한다. 예를 들면, 두벌식은 자음 한 벌과 모음 한 벌 등 두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벌식은 초성 자음 한 벌, 중성 자음 한 벌, 모음 한 벌 등 세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네벌식, 다섯벌식 등의 입력 방식이 개발된 바 있다. 이들 중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이냐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그 논란

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1960년 때에는 공병우 세벌식 타자기와 김동훈 두벌식 타자기가 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외에도 무려 13종에 이르는 타자기가 보급되어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⁶⁾. 1969년 당시 상공부 표준국은 세벌식도 두벌식도 아닌 네벌식을 표준입력방식으로 확정, 공포했으나 반대 의견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983년 8월 26일 정부는 기존의 네벌식을 폐기하고 두벌식 입력방식을 국가 표준으로 다시 지정했고⁷⁾,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세벌식도 나름의 장점에 근거해 여전히 복수 표준으로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글의 실용적인 사용과 발전을 위해서는 입력 방식에 대한 고민과 관심,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표준으로 지정된 두벌식과 복수 표준으로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세벌식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정부 표준 두벌식

1983년 정부 표준으로 지정된 이래 두벌식 자판은 현재까지도 가장 널리 보급, 사용되고 있다. 두벌식은 자음 한 벌과 모음 한 벌 등 두벌로 구성되어 있는 한글 입출력 방식이다. 한국은 물론 북한도 국가 표준으로 삼고 있다.⁸⁾ 자음 한 벌과 모음 한 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역’ 자판은 키보드 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며 이 기역 자판 하나로 초성의 기역, 종성의 기역으로도 사용하게 된다. 자음-모음-자음 순의 배열에 따라 일반적으로 왼손-오른손-왼손의 순서로 글자를 입력하게 된다. 자판의 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배우기 쉽고, 또 외우기도 쉽다. 입력된 글자의 형태가 네모틀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적 미려하게 보인다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단점 역시 지니고 있다. 왼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왼손에 부하가 걸린다는 것과 쌍자음과 겹모음을 입력할 때는 시프트(shift)키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초성이 될 자음이 앞 글자의 종성에 먼저 붙는 ‘도깨비불

현상’도 자주 거론되는 단점이다. ‘거울’이라는 단어를 입력할 때 ‘ㄱ-거-경-거우-거울’의 과정을 거치며, 중간에 ‘경’이라는 불필요한 단어가 나타나 즉각적인 인지를 방해한다. 하지만 두벌식은 정부 표준으로 지정되어, 오랜 시간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익숙한 입력 방식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으며, 당분간 두벌식이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림 10] 두벌식 입력 방식

3.2. 복수 표준으로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세벌식

세벌식은 초성 자음 한 벌, 중성 자음 한 벌, 모음 한 벌 등 3벌로 구성되어 있다. 자음을 그 위치에 따라 초성용과 중성용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특징이다. 세벌식의 장점은 입력 속도가 두벌식에 비해 비교적 빠르다는 것이다. 김장우(1999)의 연구⁹⁾에 의하면 세벌식이 두벌식보다 입력속도가 약 10%정도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두벌식에 비해 양손을 고르게 사용한다는 것도 세벌식의 장점이다. 오른손으로 시작해 왼손으로 끝나는 입력 방식도 두벌식에 비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정부 표준으로 지정되지 못함에 따라 이미 오래전에 두벌식에 주도권을 내주었으며,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굳어져 가고 있다. 두벌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판 수도 단점으로 거론되곤 한다.



[그림 11] 세벌식 입력 방식

6) 마키노 히로야. (2016). *풀어쓰기 운동과 한국어 글자판 배열*.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2
 7) EBS 지식채널제작팀. (2012). *지식e, 북하우스*, p.52
 8) 위의 책, p.52

9) 김장우 외. (1999). *한글의 새로운 시도*, 안그래픽스, p.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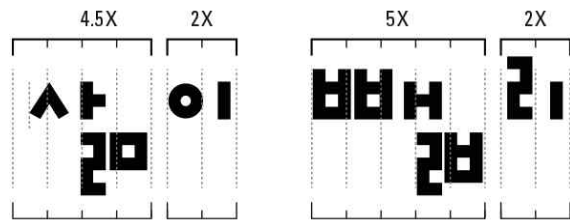
4. 조합형 한글 서체 디자인 입력 방식 제안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글 서체 디자인을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조합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물론 완성형 제작 방식도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어마어마한 작업량은 한글 서체 디자인에의 접근 자체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긴 제작 기간도 부담으로 작용하여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실질적인 한글 디자인을 다루기 어렵게 한다. 이에 비해 조합형 방식을 사용하면 짧은 시간에 비교적 손쉽게 한글 서체를 만들 수 있다. 어느 분야든 관심 증가와 저변 확대는 발전의 필수조건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조합형 제작 방식의 간편함은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합형 한글 서체 제작 방식의 단점들 중 사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 입력 방식의 변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합형 한글 서체 디자인은 주로 세벌식 자판 배열을 따르고 있다. 세벌식 입력 방식은 그 장, 단점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현재 사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따른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컴퓨터의 키보드에는 정부표준인 두벌식 입력 방식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벌식 입력 모드로 변환이 가능하지만 키보드에는 세벌식 자소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는 무리가 따른다. 현재의 컴퓨터 환경에서 세벌식 입력을 하려면 마우스 클릭으로 글자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간혹 기존 두벌식 자판 위에 세벌식 입력 값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조합형 방식으로 서체를 제작하되 입력 방식을 두벌식에 최대한 가깝게 변환하는 것은 실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4.1. 입력 방식 제안을 위한 가능성 검토

조합형 방식으로 한글 서체를 디자인하되 입력 방식을 두벌식에 가깝게 바꿀 수 있는 이유는 폰트그래퍼, 폰트랩 등의 소프트웨어가 제작 시 정한 키값에 따라 입력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키값에 원하는 자소를 배치하면 제작자의 의도대로 입력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키보드 상에서

입력이 가능한 자판의 자리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한글과 함께 사용되는 라틴 알파벳은 별도의 테이블에 만들 수밖에 없다. 결국 키보드 상에서 남는 자판인 ‘~, 1, 2, 3, 4, 5, 6, 7, 8, 9, 0, -,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남게 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겹자음을 따로 만들지 않고 하나의 자음을 두 번 입력하는 것이다. 키보드 상의 숫자와 기본적인 문장부호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겹자음 때문에 더 이상 조절이 불가능한 공간 구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12]공간조정이 불가능한 자폭의 차이

두 번째 방법은 겹자음을 따로 만들어 한글의 완성도를 높이고, 숫자와 문장 부호는 라틴알파벳 테이블에 배치하는 것이다. 장, 단점을 비교해 본다면 한글에 중심을 둔 두 번째 방식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문장 부호의 입력이 한글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고, 라틴 알파벳을 어차피 별도의 테이블에 만들기 때문에 그 테이블의 자판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4.2. 조합형 한글 서체 디자인 입력 방식 제안

우선 초성을 두벌식에 근거해 입력한다. ‘q, w, e, r, t, y, a, s, d, f, g, z, x, c, v’의 자리에 ‘ㄱ, ㅈ, ㄷ, ㅊ, ㅌ, ㅍ, ㄴ, ㄹ, ㄷ, ㅎ, ㅋ, ㅌ, ㅍ’을 입력한다. 이들 자소는 초성으로 쓰인다. ‘Q, W, E, R, T’의 자리에 ‘ㅁ, ㅂ, ㅅ, ㅈ, ㅊ, ㅌ, ㅍ’을 입력한다. 이들 자소도 초성으로 쓰이게 된다. 다음으로 ‘y, u, i, o, p, h, j, k, l, b, n, m’의 자리에 ‘ㅇ, ㅋ, ㅌ, ㅍ, ㅈ, ㅊ, ㅌ, ㅍ, ㅈ, ㅊ, ㅌ, ㅍ, ㅈ, ㅊ, ㅌ, ㅍ’ 등을 입력한다. ‘O, P’의 자리에 ‘ㅈ, ㅊ’를 입력한다. 여기까지의 자소는 두벌식 입력 방식과 모두 일치한다. ‘A, S, D, F, G, Z, X, C, V’의 자리에 다시 ‘ㅍ, ㅌ, ㄹ, ㄹ, ㅎ, ㅋ, ㅌ, ㅍ’을 입력하는데 이 자소들은 종성으로 쓰이게 된다. 이 자소들은 두벌식과 동일한 위치지만 시프트키를

일반화 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며, 지문의 난이도와 입력 속도와의 관계 등이 결과 해석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은 타당성 검증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새로운 입력 방식의 사용 가능성에 있는 만큼 설문 조사의 결과는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작 시간이 적게 걸리며 제작 방법이 비교적 간편하고 쉬운 조합형 방식으로 서체를 제작하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입력 방법을 채택한다면 이는 매우 실질적이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체 제작과 사용이 모두 편리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좀 더 쉬운 한글 서체 디자인 방법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 서체 디자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어 한글 디자인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조합형 한글 서체 디자인이 세벌식 입력 방식을 따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과 논거가 있으며 그 주장들도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두벌식 입력방식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에게 세벌식 입력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합리적이냐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변화의 한 가운데 있는 한글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한 방식이 영속적이라고 믿기보다는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연구의 한계와 제언

한글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통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글 디자인은 몇몇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서체를 원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데, 그들은 ‘도대체 한글 서체는 어떻게 만드나요? 저도 한글 서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던진다. 그때마다 대답하기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물론 그 이유는 완성형 한글 서체의 독특한 제작 방식 때문이다. 전문 서체 디자이너가 아니면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은 디자인 방법은 한글 서체 디자인의 발전을 매우 더디게 하고 있다. 완성형, 조합형 모두 현재의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누구나 쉽게 만들고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조합형의 제작 상 편리함을 살리되, 입력 방식을 현재 표준 방식으로 굳어진 두벌식과 최대한 유사하게 바꾸는 방법을 제안했다. 물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온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제작 방식의 변형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두벌식과 일치하지 않는 글자들의 입력 시 약간의 규칙을 새로 익혀야 하는 불편함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작용해 향후 보다 편리한 한글 서체 디자인 방법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한재준(1999)은 ‘활자를 만들어 본 사람이 활자를 부리는 것과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부리는 것은 말을 키워 본 사람이 말을 다루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루는 차이와 같다.’라며 서체 디자인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글 디자인에 관심은 있으나 제작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표정의 한글 서체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본영. (2011). 본문용 한글서체의 구조와 인지요인 상관성 연구. *글씨씨 737~992*
- 김장우 외. (1999). 한글의 새로운 시도. 안그래픽스
- 안상수, 한재준, 이용제. (2009). 한글 디자인 교과서. 안그래픽스
- 윤영기. (1999). 윤영기의 한글 디자인. 도서출판 정글
- 이근형. (2014). 전용서체의 형태변별력에 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 연구 통권 32호*
- 이근형. (2014). 서체사용과 학습력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 연구 통권 41호*
- 이재승. (2011). 안구 운동 추적을 통한 국어 교과서 단원 도입면 개선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EBS 지식채널제작팀. (2012). 지식 e. 북하우스
- 조주연. (2011). 국정도서 외형체제 자율화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최기용. (2011). 교과서디자인 개선 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